

푸드뱅크 사랑의 식품 나누기

서울푸드뱅크

후원: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푸드뱅크연합

지난 9월 16일, 이른 아침. 서울 용산역 광장에는 이름도 대면도 알지 못하는 식품회사들의 제품 상자가 잔뜩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제품상자를 나르고 차에 싣고 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였다.

사랑의 식품 나누기 행사.

한국푸드뱅크연합(이하 푸드뱅크)이 주관한 이 행사는, 국내 식품 관련 회사나 상점에서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식품이나 남은 음식들을 모아서 사회복지단체 등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행사다.

이날 행사장에는 김모임 보건복

지부 장관이 참석했고 동원산업, 만우유통 등을 비롯한 많은 업체에서 식품을 기탁했다.

이날 식품을 전달받은 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IMF 사태 이후 시설의 운영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인데, 이렇게 식품을 제공해 주셔서 기업체와 푸드뱅크에 고맙다."고 말했다.

조정래씨의 장면 대하소설 태백산맥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명절을 앞둔 벌교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이 떡 빛을 쌀이 없어 썩만 잔뜩 섞인 개떡으로 떡 흥내만 낸

다는, 그러나 평소 먹을 것이 없어 주린 배를 움켜잡아야 했던 아이들에게는 그 떡도 감지덕지라는 내용의 얘기...

먹거리가 넘쳐나는 요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소설 속의 이야기로밖에 생각되지 않을 일이다. 그러나 넘쳐나고 버려지는 먹거리의 한쪽에서 굶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IMF 한파 이전에도 우리 사회에 굶는 사람들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후원의 손길이 뜸해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과 대량 실직으로 인해 발생한



노숙자, 결식아동 등 그 수가 훨씬 많아졌다고 한다.

사람이 겪는 설움 중에 가장 큰 설움은 배고픈 설움이라고 하는데,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한가위를 앞두고 이들의 설움은 또 얼마나 커질는지...

한국푸드뱅크연합은 식품업체나 집단 급식소 등의 남은 음식을 공급받아, 이렇게 끼니를 걱정해야 하고 배고픈 설움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곳이다.

푸드뱅크에서 하는 일은 각 식품업체의 재고로 남아있는 상품, 과잉생산된 농수산물 등 급식에 전혀 문제가 없는 식품을 기탁받아 사회복지시설이나 저소득계층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보통, 기탁을 의뢰하는 업체와 수령기관을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푸드뱅크에서 수령하여 나눠주기도 한다.

'98년 1월, 서울·부산·대구·과천 등 4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된 푸드뱅크의 식품 나눔 운동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업체 간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8개월여 만에 16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되었다.

기탁을 의뢰하는 업체는, 어려운 이웃도 돕고 멀쩡한 제품을 재고라는 이유로 폐기 처분할 때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거기에 세금



▲ 사랑의 식품나누기 행사장에서 김모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주찬 원장이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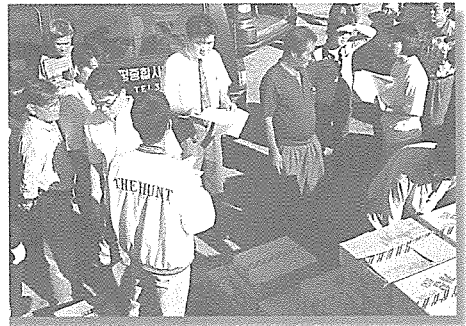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일석삼조라 할 수 있다.

푸드뱅크를 통해 기탁되는 음식은 식품제조, 가공회사의 통조림, 제과점에서 나오는 빵 등의 간편식품, 농수축산물, 결혼식 피로연이나 단체급식소에서 당일 만든 조리식품 등으로 식품 섭취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음식들이다.

이 모임의 시작부터 서울 푸드뱅크를 책임지고 있는 최주찬씨(은성기술원 원장)는 앞으로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푸드뱅크가 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전한다.

푸드뱅크가 상설기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언론의 꾸준한 홍보와 지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로만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업무량, 업무의 성질상 신속한 차량운반 지원 등.

최주찬 원장을 비롯한 푸드뱅크 식구들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어려운 주변 여건 속에서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해 주는 다리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는 푸드뱅크 식구들. 이들은 사랑의 식품나누기 운동이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Z]

(글·한연수(자유기고가))

* 아껴 남긴 식품이나 제조, 판매제품, 과잉생산된 식재료 등이 있으신 분의 소중한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플라자 1451
전화 : (02) 712 - 0766